

특례시 실현 행정력 '하나로'

김승수 전주시장, 시청 직원 대상 특례시 지정 특강

정부가 추진중인 특례시 지정의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 이 직원들에게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해 행정력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8일 시청강당에서 열린 '3월 중 청원공감한마당' 행사에서 시청 직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전주와 전북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 중점추진중인 '전주 특례시 지정'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 특례시는 전주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을 받아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 과정에서 한 개 뭉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특례시의 의미와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뒤, 참석 직원들에게

여론과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 유도 및 정치권 및 타 지자체와의 공조 등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 위한 지혜와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 시장은 완전한 지방분권을 이루기위한 방안으로 인구 하나뿐인 확실적인 기존의 정부계정안보다는 지역의 특수성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도청소재지이자 중추도시인 전주 특례시 지정 당위성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그간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세미나와 포럼, 지혜의 원탁을 개최했으며, 시민들이 주도하는 전주 특례시 지정 '범시민 서명운동'과 특례시 지정 촉구를 위한 '전주시의 날'도 운영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이 28일 시청강당에서 열린 '3월 중 청원공감한마당' 행사에서 시청 직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전주와 전북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 중점추진중인 '전주 특례시 지정' 관련 특강을 하고 있다. 특례시는 전주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을 받아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 과정에서 한 개 뭉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어려운 장애이웃에 과태료 대납 후원

꿈드래장애인협회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과태료를 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납한 단체가 있어 훈훈한 정감이 넘쳐나고 있다.

상관면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씨(84세)는 약초를 운반하는 과정중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힘든 생활고에 과태료를 못내는 사실을 접한 (사)꿈드래장애인협회(회장 양형섭)가 최모씨의 과태료를 대납해 줬다.

최모씨는 청각장애 5급으로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정부로부터 매달 30만원씩 생계급여를 받고있는 장애인으로 알려졌다.

이를 대납한 양형섭 회장은 "이웃으로 함께 살고있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최모씨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담했다."며, "앞으로도 남은 여생을 좀더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이 될수 있도록 도움이 될수있는 한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사실을 접한 최모 할아버지는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수가 없다"면서 "앞으로는 절대 죄지고 사는일은 없을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사회적으로도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꿈드래장애인협회는 도내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을 물론 이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효철 기자

세외수입 담당자 전문성 강화

전주시가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시는 28일 시청 정보과 교육장에서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확한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활용방법과 징수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 추진시 필요한 직무교육도 함께 실시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시는 세외수입 과정과 압류 등에 대한 전산교육, 인터넷등기소와 신용카드로 납입시스템 사용방법에 의한 실무위주의 교육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희 전주시 세정과장은 "올해는 직무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 인사이동으로 담당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세외수입 업무능력을 향상 및 부서의 정확한 부과와 신속하고 정확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완주, 수소경제 선점 위한 청사진 마련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수소에너지 주민 이해도 향상 등 수립·추진

전주시와 완주군이 함께 미래성장동력인 수소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

시는 28일 전주 부시장실에서 김양원 전주시장과 문원영 완주부군수, 수소 관련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완주 수소산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동일생활권인 전주시와 완주군이 수소경제시대를 선도할 친환경 수소산업 거점도시가 되기 위해 지역 여건과 역량에 맞는 수소산업의 비전과 목표, 단계별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용역기간은 오는 12월까지 9개월 동안으로, 전주시와 완주군은 수소산업에 대한 국내·외 정책 및 사례 분석과 지리적·산업적 여건과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뒤 수소산업 국가 정책방향을 반영한 전주-완주 수소산업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또, 수소산업 육성

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양 시·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올해 선정 예정인 '수소기반 시범도시' 지정을 위한 전주-완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과제를 발굴하고, 수소에너지에 대한 주민 이해도 향상 및 주민수용성 방안, 대중화 계획 등을 수립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수소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고 수소충전소와 수소 상용차 등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번 연구용역은 단일기관이 아닌 (사)한국수소및신에너지협회와 (재)에너지경제연구원, (사)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등 수소 관련 전문가그룹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정부의 '수소

경제 로드맵' 및 정책발표 이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3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등 수소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해왔다.

김양원 전주 부시장은 "미래의 에너지 패러다임은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경 연료, 친환경 에너지로 변화될 것이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고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전주-완주는 공동협력을 통해 친환경 수소산업 거점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 민선 6기 출범이후 △시내버스 노선개편 △양 지역 교통분야 숙원사업인 하리교 재가설 추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혁신도시 주민의 독서문화 확산과 문화체육 향유를 위한 협약) △사전거도로 개설 △전주광역시 기업유치단 운영 등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28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전주시 9개동 마을계획추진단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원도심 마을계획추진단 합동발대식'을 가졌다.

예수병원, 폐렴 적정성 평가 99.9점... 3회 연속 1등급

예수병원(병원장 권창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폐렴 적정성평가에서 3회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에서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3일 이상 항생제(주사) 치료를 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99곳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예수병원의 종합점수는 99.9점으로 전체평균 79.1점, 종별 평균 90.9점보다 크게

있었다. 예수병원은 "폐렴 적정성평가 지표 8개 항목 중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모니터링 지표인 초기 항생제 선택의 적합성 점수가 높고,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을 및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이 낮아 폐렴 치료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다. 한편, 예수병원은 폐암 적정성평가 3년 연속 1등급,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 4년 연속 1등급에 이어 폐렴 적정성평가에서도 3년 연속 1등급을 받아 폐질환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나들가게 육성 2년 연속 '최우수'

전주시, 침체된 동네슈퍼 지원 '결실'

전주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8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나들가게 육성 사업을 수행한 1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시는 지난 2017년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나들가게 육성 사업은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 등의 진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슈퍼마켓에 대해 시설현대화와 경영개선지원, 점주역량강화, 지역특화 사업 등 현장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시는 3년간 이 사업을 통해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29개소 △경

영개선(시설개선, 안전, 상품, 운영) 516개소 △점주역량강화교육 196개소 △해의견회 17개소 △공동세일전 450개소 △지역특화사업 113개소 등을 지원, 침체된 동네슈퍼를 나들가게로 육성·지원하는데 힘써왔다.

그 결과 참여한 동네슈퍼의 매출액이 사업 전보다 평균 4% 상승했다. 이에 앞서, 시는 1차년도인 지난 2016년 평가에서는 '우수', 2017년 평가에서는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받기도 했다.

김형호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통해 대형 유통기업과 합동 경쟁하는 골목슈퍼의 자생력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전주 시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상대 정당 후보 조직 매수' 안호영 의원 친형 등 기소

지난 총선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돈으로 매수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명 불구속 기소 안호영 의원 측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 없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상대 정당 후보 조직을 거액의 돈으로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시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54) 국회의원의 선거 캠프 참모 임모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씨 등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4월 초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이문순 예비후보 캠프 조직 측에 활동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 3000만원을 건네고 안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돈을 받은 이 후보 캠프 관계자 유모씨(51)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 의원 측에서 이 후보 측에 접근했으나 이 후보 측이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의 친형은 주식을 팔아 돈을 마련해 이 후보의 캠프 관계자 유씨와 장모(51)씨 등 2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2016년 6월 전북 완주군내 지인과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흉기에 찔려 숨지면서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전북 완주군의 유권자는 진안·무주·장수군의 총 유권자보다 많기에 임씨 등이 완주에서 입지자 강안이 후보 조직의 세력을 포섭, 선거활동을 하기 위해 거액의 조직 활동비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국민의당을 탈당한 직후인 4월 초 안 의원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직을 수락하고 본격적인 지원유세를 펼친 바 있다.

안 의원 측은 "안 의원이 이런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 역시 2차례에 걸쳐 이뤄진 참고인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안 의원 캠프 내부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며 "제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면책하고 불입건 처리했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잠복 경찰, 보이스피싱 전달책 붙잡아

조직으로부터 피해금 1% 수수로 받기로 하고 범행 가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조직에 전달하려고 한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전달책 A모(4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전주 시내 한 고등학교 앞에서 B씨로부터 현금 2천 900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하다가 A씨를 붙잡았다. 앞서 B씨는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금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B씨의 통장에 있던 현금은 경북에 사는 C씨가 금융실적을 쌓으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출동 경찰 폭행 20대 검거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공무원집행방해 등 혐의로 A모(2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 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5분경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B 경사의 목을 한 차례 때리고 C 경장의 머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사 등은 신원을 확인하던 중 달아나려는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로 만취상태였다. /강석훈 기자